

보도자료

온라인은 4월 29일(수) 배포 시
지면은 4월 29일(수) 석간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대외협력팀: 장준용 팀장, 권익만 담당
학부대학 교학팀: 조아라 팀장

052-217-1222 / 010-8547-1004

052-217-6701

이창호 · 이세돌, UNIST서 ‘AI 시대 인간의 승부수’ 논한다

- 5월 6일(수) 2시 토크콘서트 개최,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
- GRIT인재융합학부 신설 취지... 두 거장 집념 · 창의성 조명 -

한국 바둑을 대표하는 이창호 국수와 이세돌 9단이 UNIST에서 마주 앉아 AI를 논한다. 대담은 AI 시대 인간의 판단력, 창의성, 끈기를 다룬다. UNIST가 신설한 GRIT인재융합학부의 교육 방향을 바둑이라는 상징적 사례로 풀어내는 공개 행사다.

UNIST(총장 박종래)가 오는 5월 6일(수) 오후 2시 본관 대강당에서 ‘UNIST 오픈스테이지(Open Stage) 1’ 을 개최한다. 주제는 ‘반상 위로 먼저 온 미래: 이창호 · 이세돌이 전하는 AI 시대의 한 수’ 다. 바둑, AI, 미래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UNIST가 학부 신설을 알리는 첫 공개 무대의 소재로 바둑을 택한 것은 한 수의 승부 안에 GRIT인재융합학부가 강조하는 판단력, 창의성, 집념, 회복력이 압축돼 있기 때문이다.

바둑에는 계산과 직관, 위험 감수와 책임, 패배 뒤 복기와 재도전이 모두 담겨 있다. 이창호 국수는 흔들림 없는 집중력과 정확성으로 세계 정상을 지켰고, 이세돌 UNIST 특임교수는 알파고와의 대국으로 인간의 직관과 창의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두 기사의 서로 다른 기풍에서 출발해 알파고 이후 인간 사고의 변화, 정상의 자리에서 겪은 패배와 슬럼프, 스스로 길을 만든 경험, AI 시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차례로 짚는다.

이번 행사의 배경에는 GRIT인재융합학부 신설이 있다. 이 학부는 학생이 전공과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는 미래형 교육 모델이다. 입학생은 기존 학과를 고르는 대신 자신의 연구 질문과 관심 분야, 진로 목표를 바탕으로 학업 경로를

한다. 수업은 프로젝트 기반 탐구교육(PBI)으로 운영되며, 학생마다 전담 교수가 배정돼 1대1로 학업과 탐구를 지도한다.

특히, 과도한 학점 경쟁을 줄이고 도전적인 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교과목에 P/NR(Pass/No Record) 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학생은 졸업 시 융합이학사 또는 융합공학사 학위를 받으며, 직접 설계한 전공명은 성적증명서에 공식 표기된다. 학부는 올해 1학기부터 조직과 교육과정 준비에 들어갔으며, 2027학년도부터 ‘GRIT인재전형’으로 신입생 10명 내외를 별도 선발할 계획이다.

초대 학부장을 맡은 김철민 교수는 “학생이 스스로 던진 집요한 질문 하나가 4년간 파고들 전공이 되고, 수많은 실패와 재도전의 기록이 곧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로 완성되는 곳”이라며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갈 시대에 정답 없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나갈 돌파력과 생존력을 길러내는 것이 목표”라고 신실 취지를 밝혔다.

박종래 UNIST 총장은 “AI 시대 대학은 학생이 자기 질문을 만들고, 실패를 견디며, 스스로 해법을 찾아가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며 “이번 행사가 학생과 시민들이 인간 고유의 끈기와 창의성, 판단력을 함께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UNIST 오픈스테이지는 시리즈형 공개 프로그램으로 이어진다. 5월 말에는 세계적 미디어 아티스트인 김아영 UNIST 특임교수의 스크리닝 및 아티스트 토크가 예정돼 있으며, 이후에도 과학기술·예술·창작 분야 인사를 초청해 GRIT인재융합학부가 지향하는 인재상을 소개할 계획이다. (끝)